

# 제 3 회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한일비교분석 결과 보고서

※[Embargo] 본 내용에 대해서, 라디오·텔레비전·통신사·온라인 등에서는 2015년 5월 29일 (금) 16:00 이후에, 신문 지상에서는 5월 30 (토) 조건부터 보도 주십시오.  
※본 여론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겐론 NPO 와 동아시아 연구원에 있습니다.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정비영리활동법인 言論 NPO



동아시아연구원

< 조사협력 >

日本 : 世論総合研究所    한국 : 한국리서치

< 한국조사 후원 >

**KFAS** 한국고등교육재단

2015年5月

## <조사 개요>

한국의 민간싱크탱크인 EAI와 일본의 공인NPO인 言論NPO는 한일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인식조사를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의 현황 및 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여 양국 국민 간에 존재하는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본 조사 결과는 두 기관이 한일 양국의 관계개선을 목적으로 2014년 5월에 창설한 한일 민간대화(제3회 한일미래대화: 2015. 7.18 개최 예정)에서 함께 발표되고 논의 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한국측의 여론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조사원에 의해 면대면 면접 방식 의해 실시되었다. 유효 회수 표본 수는 1010 명으로,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초졸 이하가 7.8%, 중졸이 7.1%, 고졸이 37.4%, 대학재학/중퇴(전문대학 포함)가 11.4%, 대졸이 35.0%, 대학원 졸이 1.0%였다.

일본측의 여론조사는, 일본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고교생을 제외)를 대상으로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방문유치회수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유효 회수 표본 수는 1000 명이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초/중졸이 9.9%, 고졸 45.5%, 단기/전문고졸이 18.3%, 대졸이 23.2%, 대학원 졸이 1.2%였다.

본 여론조사와는 별도로,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 NPO는 양국 지식인(有識者)에 대한 설문 조사를 4월 상순부터 5월 하순에 걸쳐 양국 국내에서 실시했다. 한국 측은 약 5000 명의 EAI 회원과 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민여론조사에서 발췌한 19개 문항의 질문을 이메일로 배포하여 총 310 명의 유효응답을 받았다. 일본 측은 과거 言論NPO가 진행한 토론회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일본 내 지식인 등 약 6000 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634 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이 응답자들은 일본 및 한국 사회의 평균적인 지식인의 인식을 대표한다고 간주하고, 양국의 국민여론과 비교함으로써 한일관계에 대한 양국 여론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 1. 상대국에 대한 인상

## 1 - 1. 상대국에 대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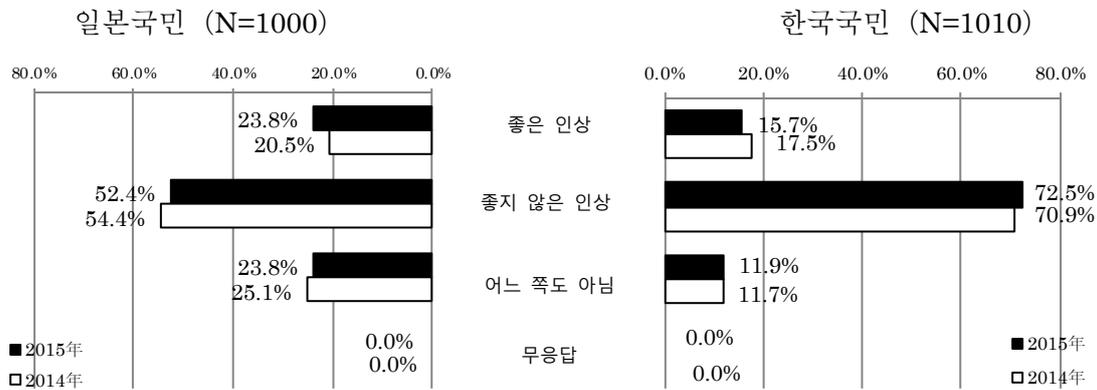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상은 여전히 50%가 부정적이지만 개선되는 추세다.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인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다 .**

한국인은 일본에 대한 인상을 '좋지 않다'고 응답 한 사람이 72.5% (지난해 70.9%)로 여전히 70%이상이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좋다”(“대체로 좋다”를 포함, 이하 동일)고 응답 한 사람은 지난해 17.5%에서 15.7%로 낮아져 대일본 감정 악화추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다”(“대체로 좋지 않다”를 포함, 이하 동일) 고 응답 한 일본인은 52.4%(지난해 54.4%)로 여전히 50%를 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약간 개선되는 추세다. “좋다”는 응답도 23.8%로 지난해 20.5%보다 증가했다. .

※ 일본의 지식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좋다'는 응답이 42.7% (지난해 41.7%)과 '좋지 않다'는 응답이 43.2% (지난해 44.2%)로 대립하고 있다. 한국의 지식인은 '좋다'는 응답이 지난해 51.7%에서 55.2%로 약간 증가하였고, '좋지 않다'는 응답 36.4% (지난해 36.8%)에 비해 많았다.

【그림 1 상대국에 대한 인상】



※ 좋은 인상은 “좋다”과 “대체로 좋다”를, 나쁜 인상은 “나쁘다”와 “대체로 나쁘다”를 각각 더한 수치이다.

## 1 - 2. 긍정적·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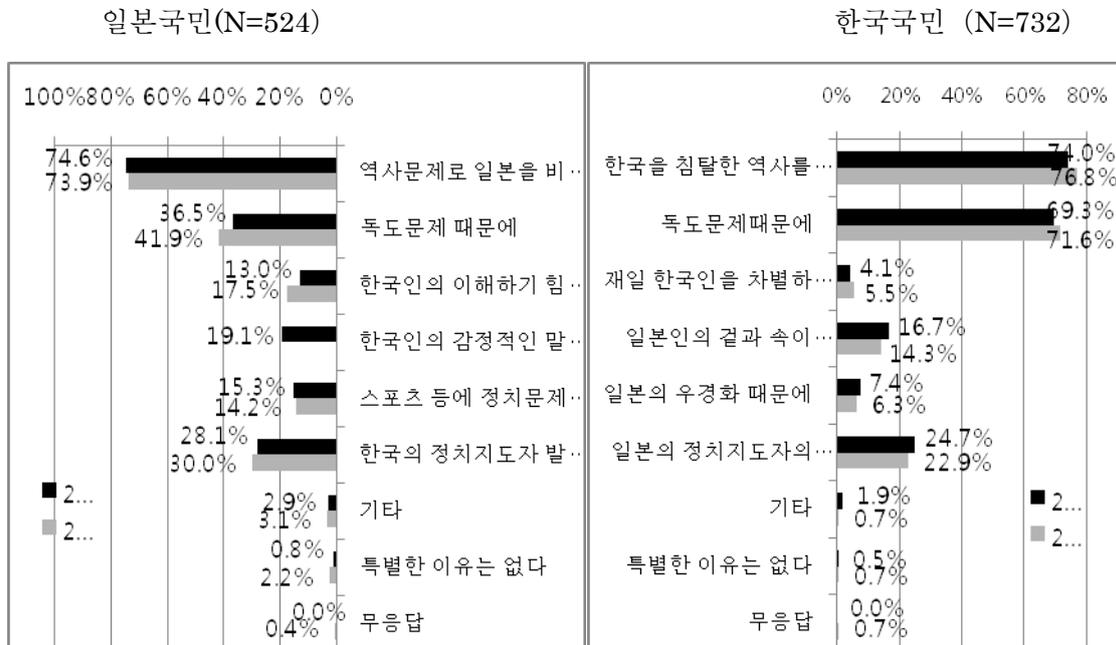
### 양 국민 모두에게 “역사”와 “영토문제”가 상대국 인상에 부정적인 영향 미치고 있다

한국인이 일본에 부정적인 인상을 가진 이유에 대해 “한국을 침략한 역사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4.0%로 지난해 76.8%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70%를 넘어서고 있다. “영토 문제” 69.3%(지난해 71.6%)로 70%에 육박하였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다른 요인을 압도하고 있다.

일본인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진 이유로 “역사 문제 등으로 일본을 비판하고 계속 때문”이라는 응답이 74.6%로 (지난해 73.9%)에 이어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영토 갈등”을 꼽은 응답은 36.5%로 그 뒤를 이었지만 지난해 41.9%에서 비해서는 다소 감소했다

반면 상대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진 이유로 일본인은 “한국 드라마 나 음악 등에 관심”을 꼽는 사람이 51.7%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59.0%보다는 감소했다. 반면 한국인은 “일본인은 친절하고 성실하다”는 응답이 63.9% (지난해 56.8%)로 가장 많았다. “생활 수준이 높은 선진국”이라는 응답이 49.4% (지난해 53.4%)로 뒤를 이었다. 일본에 긍정적인 이유로 “같은 민주주의국가”라고 꼽은 응답은 지난해 14.8%에서 8.9%로 감소했다.

【그림 2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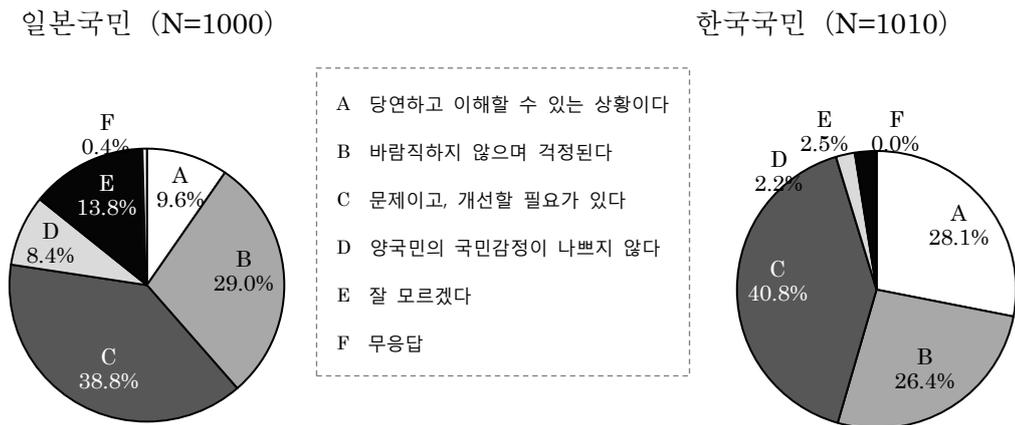
### 1 - 3. 양국 국민감정의 악화 현상에 대한 인식

**한일 양국 국민의 약 70%가 한일양국 국민감정의 악화를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개선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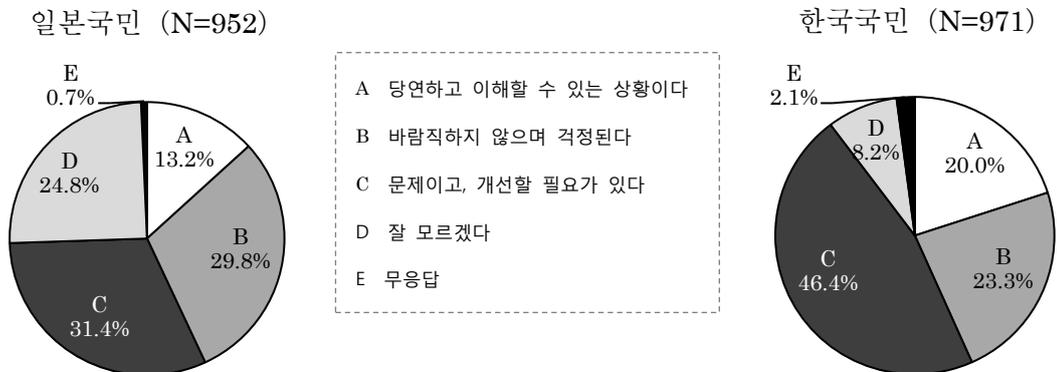
한국 국민들은 한일양국 국민들의 국민감정이 악화된 현 상황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며, 걱정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이 26.4%, “문제이며,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0.8%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의 70% 가까이 (67.2%)가 양국 국민감정의 악화를 문제로 보고 있는 셈이다.

한편 양국 감정이 여전히 나쁜 상황을 일본인의 30% 가까이(29.0%)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며,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제이며, 개선 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38.8%나 되었다. 두 응답을 합치면 약 70%(67.8%)이 양국 국민 감정이 악화되는 현상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현 상황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본에서는 10%에도 못 미쳤지만, 한국에서는 28.1%로 상당한 수가 존재하고 있다.

【그림 3 양국 국민감정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참고 : 2014년 양국 국민감정 현황에 대한 인식】



※ 지난해는 상대국에 대한 인상이 “달라지지 않았다”, “대체로 나빠졌다”,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에 대해서만 양국의 국민감정 현황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 2. 상대국에 대한 기초적 이해

### 2 - 1. 상대국의 사회·정치체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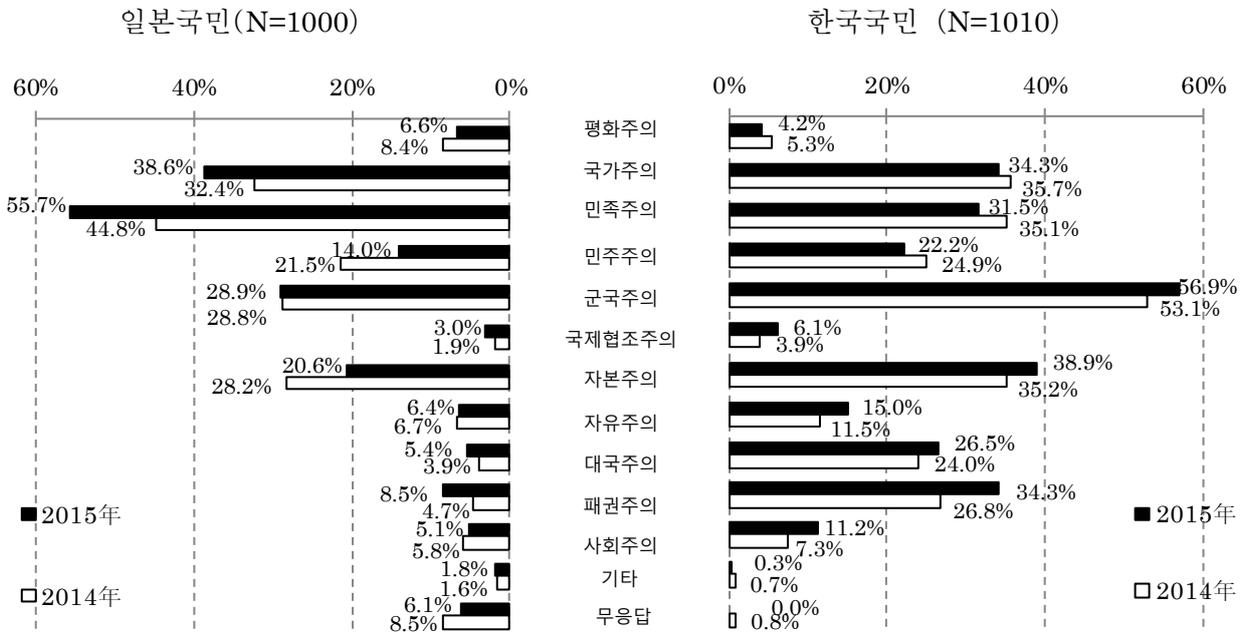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일본을 “군국주의”로, 일본인의 반수 이상이 한국을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인은 현재 일본의 사회·정치체제의 성격을 “군국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6.9%로 가장 많았고, 지난 해의 53.1%를 웃돌았다. “자본주의”라고 답한 응답은 38.9%(지난해 35.2%)로 뒤를 이었다. 일본을 보고 “패권주의”를 떠올린 한국인은 34.3%로 지난해의 26.8%에 비해 증가했고, 일본을 보며 “민주주의”를 떠올린 사람은 22.2%로 지난해 24.9%와 마찬가지로 열 명 중 두 명 꼴인 수준이다.

한편, 한국의 사회정치체제의 성향을 “민족주의”로 생각하는 일본인은 55.7%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44.8%에서 약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뒤를 이어 “국가주의”라고 보는 사람이 38.6%로 지난해의 32.4%를 약간 웃돌았다. 한국을 보고 “민주주의”를 떠올린 일본인은 14.0%에 불과해 지난해 21.5%에서 크게 감소했다.

일본인, 한국인 모두 상대국 체제의 기반을 “평화주의”로 보는 견해는 각각 6.6%, 4.2%로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림 4 상대국의 사회·정치체제의 성격에 대한 이해】



### 3.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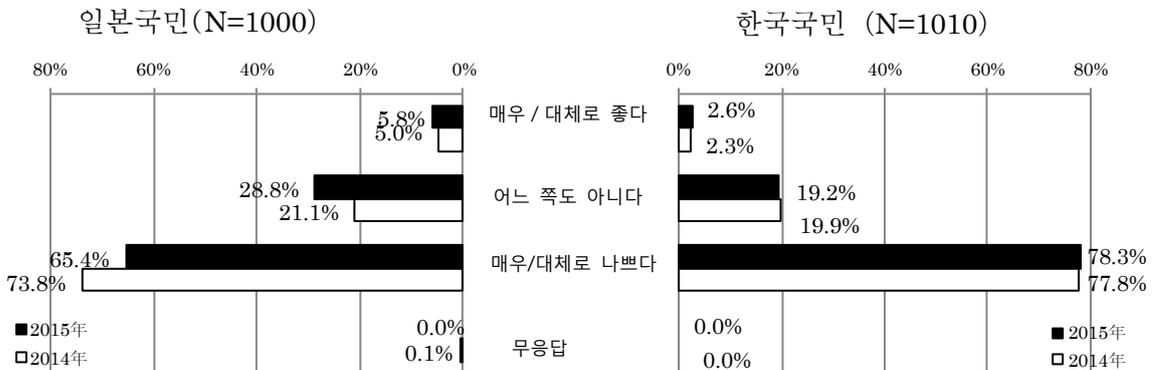
#### 3 - 1. 현재와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한국인의 80%, 일본인의 60% 이상이 현재 한일 관계를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양국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양국 모두에서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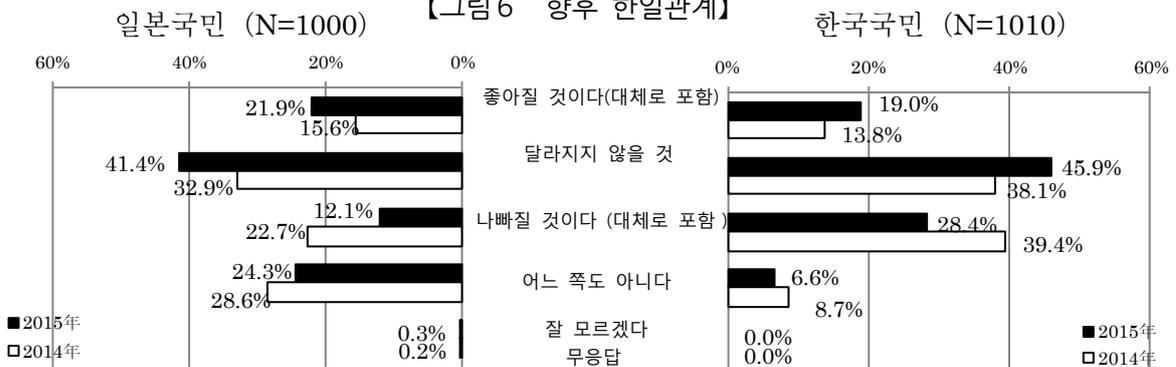
현재의 한일 관계에 대해 "나쁘다"는 인식("매우 나쁘다", "대체로 나쁘다"의 합계, 이하 동일)이 한국에서는 78.3%로 지난해(77.8%)와 마찬가지로 80%에 육박했지만, 일본에서는 65.4%로 나타났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73.8%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되었다.

향후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현재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다. 한국인 45.9%(지난해 38.1%), 일본인의 41.4%(지난해 32.9%)가 현재의 한일관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대체로 좋아질 것" 포함)을 보면 한국인은 19.0%(지난해 13.8%), 일본인이 21.9%(지난해 15.6%)로 각각 지난해를 기점으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또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대체로 나빠질 것" 포함)은 한국인에서 28.4%(지난해 39.4%), 일본인은 12.1%(지난해 22.7%)로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등 관계 개선의 기대는 커지고 있다.

【그림 5 현재의 한일관계 평가】



【그림 6 향후 한일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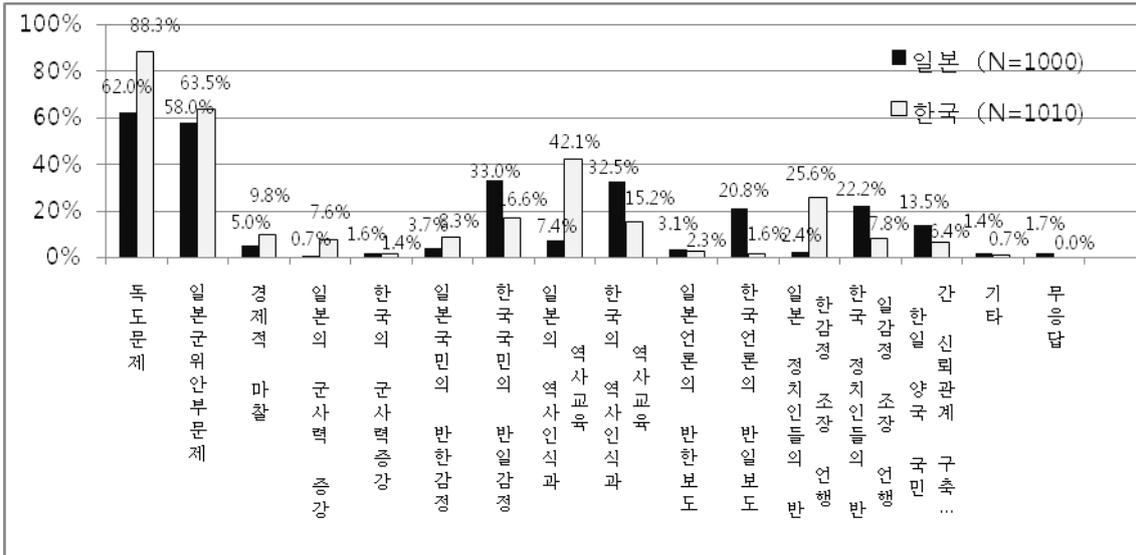
### 3 - 2. 한일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양 국민 모두 “독도(다케시마)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발전의 최대 장애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일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독도(다케시마) 문제”를 꼽은 응답이 한국국민의 88.3%(지난해 92.2%)로 90%에 육박했고, 일본국민의 62.0%(지난해 68.9%)로 지난해 68.9%에서 다소 감소했다. 다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선택한 응답이 많았는데 한국인의 63.5%, 일본인의 58.0%로 양국에서 각각 2 번째로 많은 응답으로 꼽혔다.

※ 양국의 지식인 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의 지식인 조사에서는 “일본의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을 꼽은 응답이 66.8%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일본의 지식인 조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47.3%)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의 역사인식과 역사교육”(34.1%), “한국언론의 반일적인 보도”(33.0%), “한국국민의 반일감정”(31.5%)을 꼽은 응답이 고르게 나타났다.

【그림 7 한일 양국관계의 장애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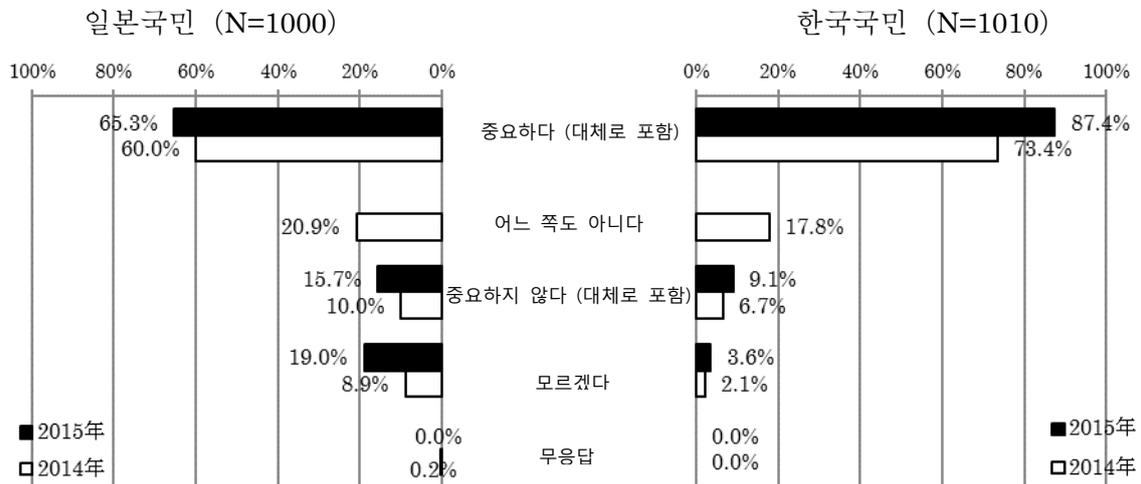
### 3 - 3. 한일관계의 중요성

**한일관계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비율이 한국에서 90% 육박, 일본에서 60% 넘어섰다.**

한일관계를 “중요하다”(“대체로 중요하다” 포함)고 생각하는 응답이 한국인은 87.4% (지난해 73.4%)로, 90%에 육박했고, 일본인은 65.3%로 가장 많았다. 한편, 한일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대체로 중요하지 않다”포함)고 답한 한국인은 9.1%(작년 6.7%), 일본인은 15.7%(작년 9.0%)에 불과하다.

이번 결과는 작년 조사에 포함되었던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라는 선택을 이번 조사에서 삭제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데, 특히 한국에서는 중립적 응답층의 대부분이 올해는 “중요하다”는 응답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한일관계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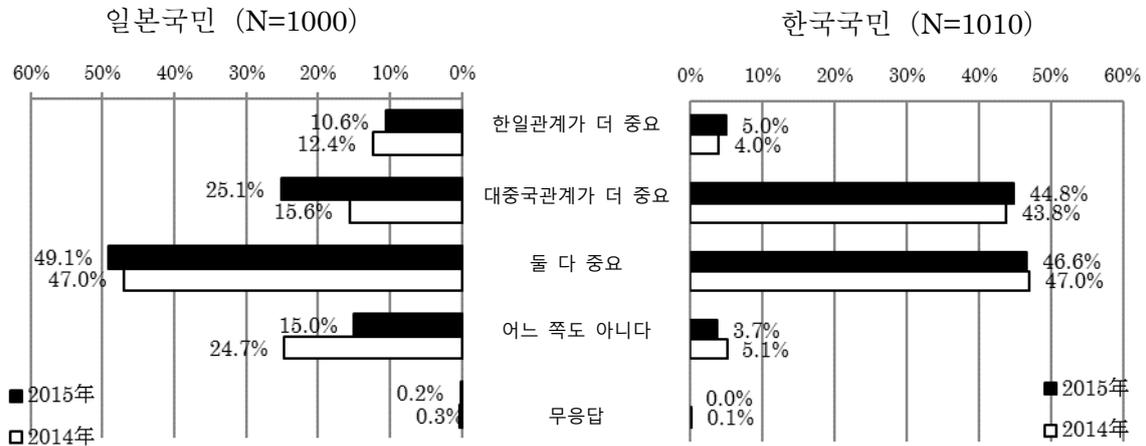
### 3 - 4. 중국 대비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친근감

한국인은 일본보다 중국에 더 친근감을 느끼고, 한중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다. 일본에서도 한일관계보다 일중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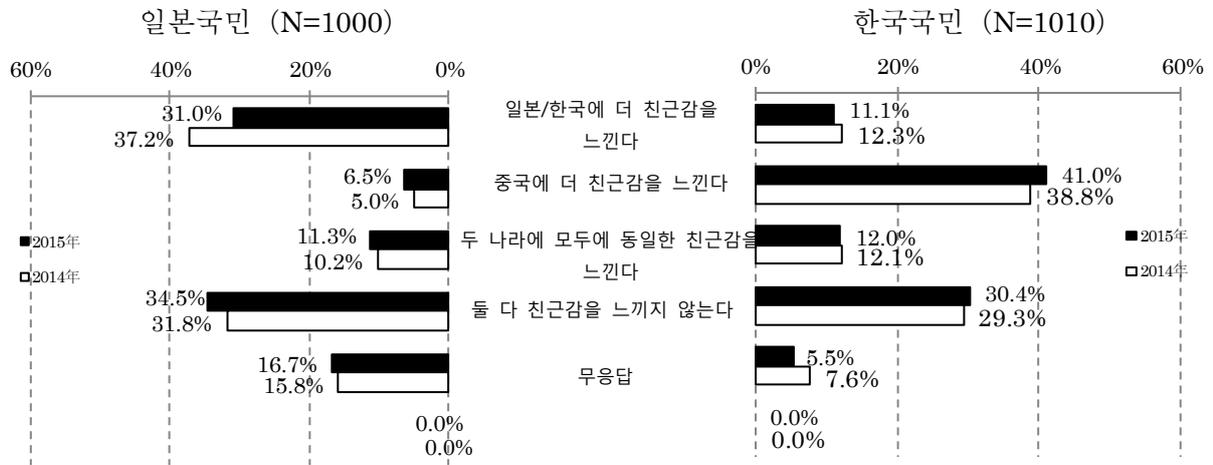
한일관계와 한중관계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지 물어보면 한국인의 46.6%(지난해 47.0%)인 절반 가까이가 “한중관계와 한일관계 둘 다 중요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다만 “한중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44.8%(지난해 43.8%)로 40%를 넘어 “한일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을 앞지르고 있다. 일본인의 경우도 “둘 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49.1% (지난해 47.0%)로 절반 가까이 되었지만, “중일 관계가 한일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응답이 지난해 15.6%에서 25.1%로 10% 포인트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중 어느 쪽에 더 친근감을 느끼는 지 물어본 결과 한국인의 경우 “중국에 더 친근감을 느낀다”사람이 41.0% (지난해 38.8%)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에 더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11.1%(지난해 12.3%)에 그쳤다. 반면 일본인의 경우 “양국 모두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34.5% (지난해 31.8%)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한국에 더 친근감을 느낀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37.2%로 가장 많았지만, 올해는 31.0%로 감소했다.

【그림 9 중국관계 대비 한일 관계의 중요성】



【그림 10 상대국과 중국에 대한 친근감】



## 4. 정부간 외교와 민간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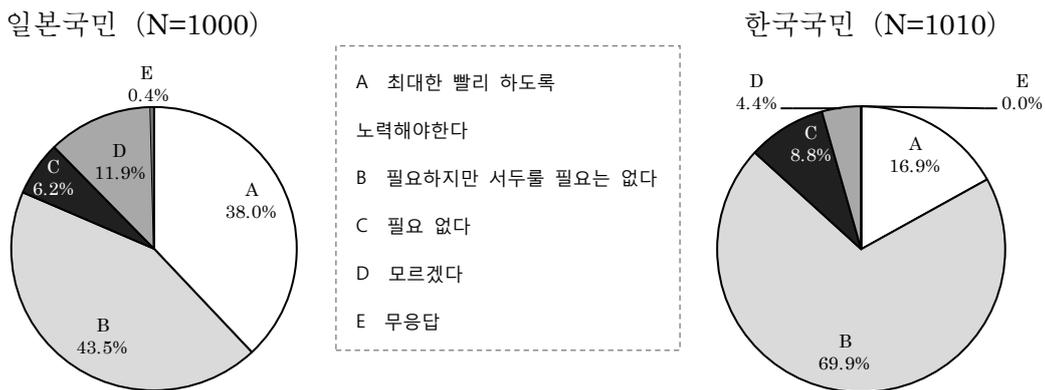
### 4 - 1. 한일정상회담의 필요성과 논의 의제에 대해

양 국민 모두 80% 이상이 한일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인의 약 70%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대답했다. 정상 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로 한국에서는 "역사 인식 문제"와 "영토"문제를 중시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포괄적인 협력방안 논의"를 선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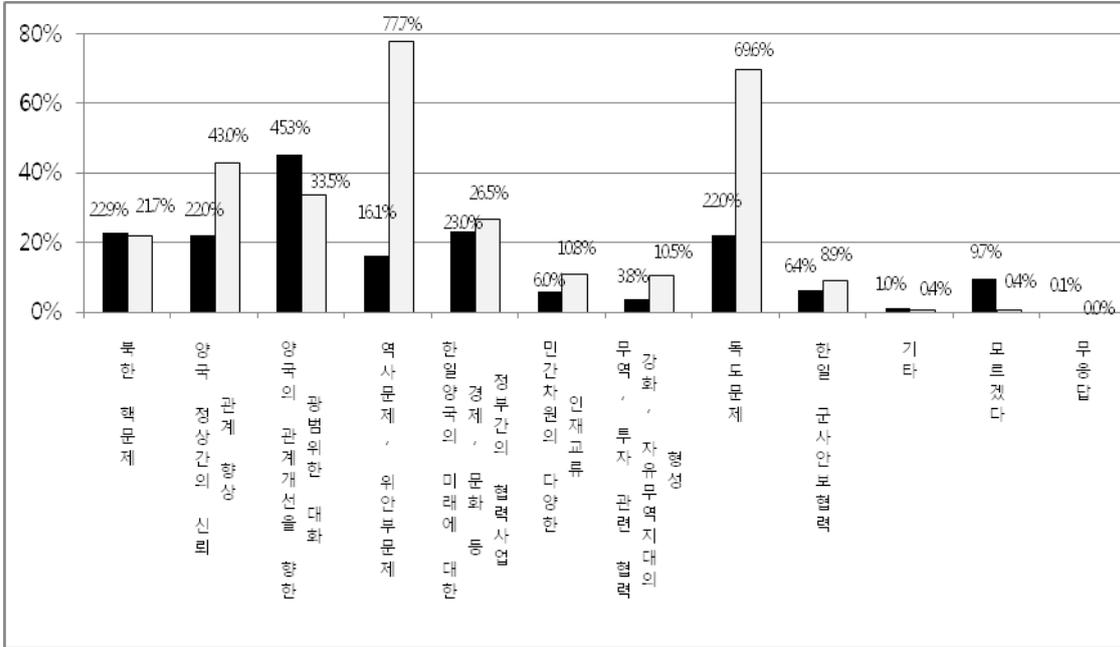
한일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양 국민 모두 80%를 넘는 사람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 는 한국인은 69.9%(지난해 72.4%)이며, 일본인 중에서는 43.5%(지난해 40.5%)로 나타났다.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로 한국인은 "역사인식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77.7%(지난해 76.3%)로 가장 많았고, 여기에 "독도 문제"가 69.6% (지난해 70.3%)로 뒤를 이어 "역사 인식"과 "영토" 문제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인은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논의"를 선호하는 응답이 45.3%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35.6%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 지식인 조사에서는 한국인의 68.1%, 일본인의 53.5%(지난해 50.2%)가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논의"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림11 정상회담의 필요성】



【그림 12 정상회담의 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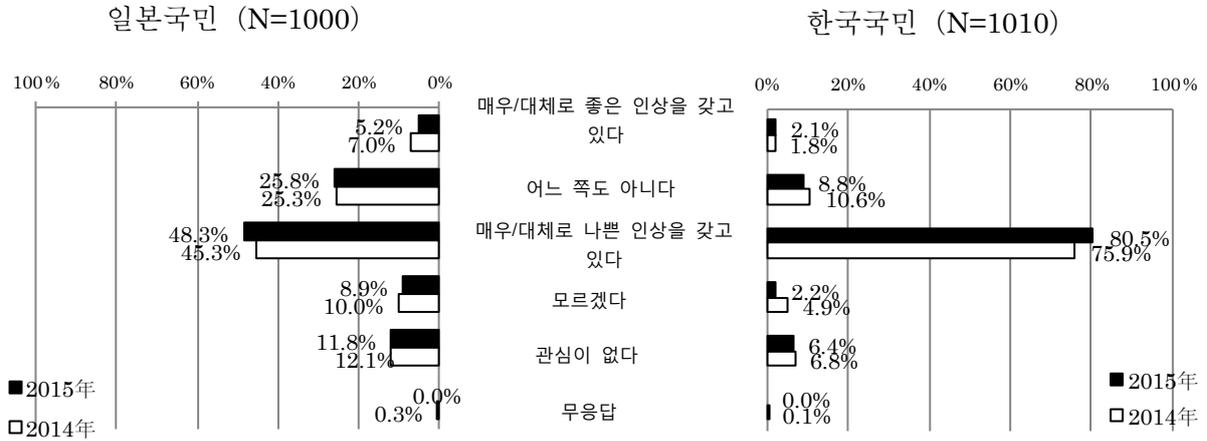


## 4 - 2. 상대국 정상에 대한 이미지

**양 국민 모두 상대국 정상에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특히 한국인의 일본 총리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응답은 80%를 넘었다.**

한국인은 일본의 총리에 대해 “나쁜 인상”(“매우” 또는 “대체로”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의 합계)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80.5%로 지난해의 75.9%를 넘어섰다. “좋은 인상”(“매우” 또는 “대체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의 합계)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불과 2.1%(작년 1.8%)였다. 한국의 정상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일본인은 48.3% (지난해 45.3%)로 절반 가까이 되었다.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5.2% (작년 7.0%)에 불과하다.

【그림 13 상대국 정상에 대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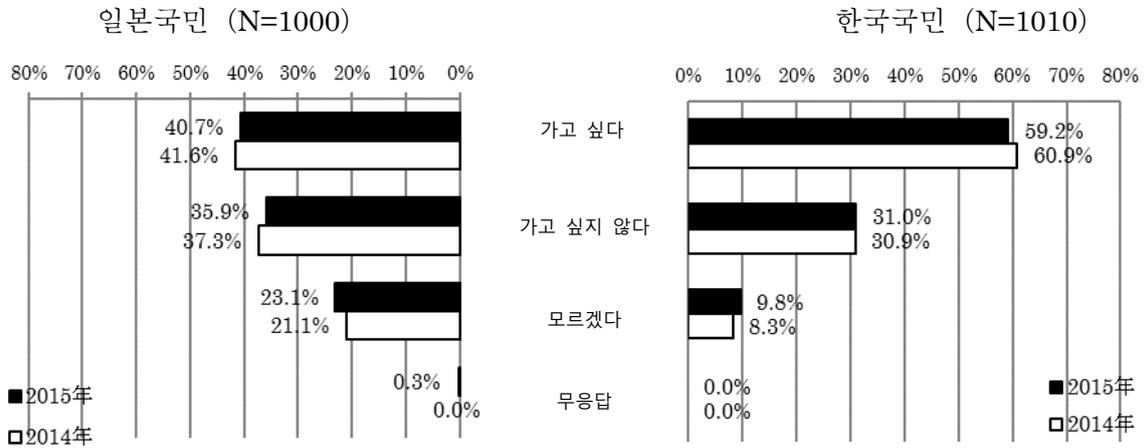


### 4 - 3. 상대국 방문 의사

**상대국에 방문하고 싶다는 한국인은 60%에 육박했고, 일본인은 40%를 넘었다.**

일본에 “가보고 싶다”는 한국인은 59.2%(지난해 60.9%)로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일본인은 40.7%(지난해 41.6%)로 나타났다. “가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한국인은 31.0%(지난해 30.9%), 일본인의 35.9% (지난해 37.3%)로 나타나 30% 정도는 상대국 방문의사가 없었다. 양국 모두 상대국에 대한 방문의사가 상대적으로 많아 상대국에 대한 관심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 상대국 방문의사】



## 5. 한일양국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

### 5 - 1. 역사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민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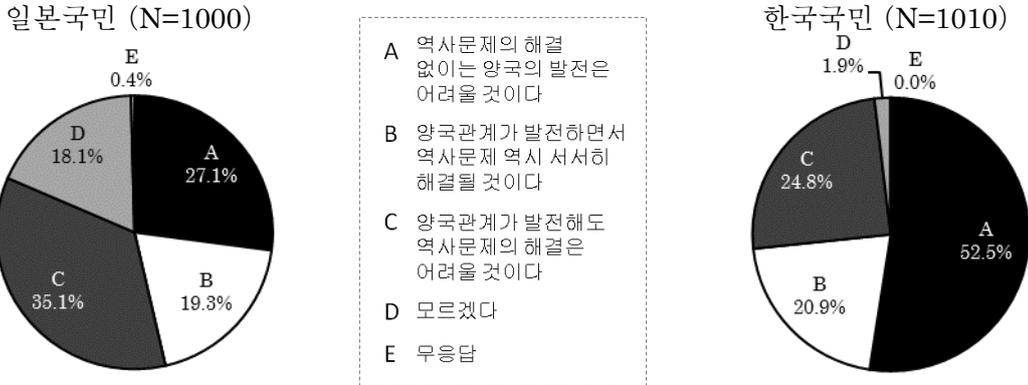
한국에서는 “역사 인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는 발전하지 않는다”며 역사문제의 해결을 한일관계의 전제로 이해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역사인식 문제의 해결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가 강했다.

한일관계와 역사문제와의 관계에 대해 한국인은 “역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는 발전하지 않는다”고 역사문제의 해결을 한일관계의 전제로 보는 견해가 52.5%로 절반을 넘어 지난해의 41.1%보다 크게 늘어났다. “양국관계가 발전하더라도 역사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응답은 24.8%(지난해 30.6%), “양국관계가 발전하면서, 역사문제 역시 점차 해결될 것이다”라는 답변은 20.9% (지난해 23.3%)로 열 명 중 두 명 수준에 그쳤다. 일본인은 “양국관계가 발전하더라도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35.1% (지난해 34.7%)로 가장 많았고, “양국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역사문제는 점차 해결될 것이다”라고 낙관하는 견해는 19.3%로 지난해(20.0%)와 비슷하게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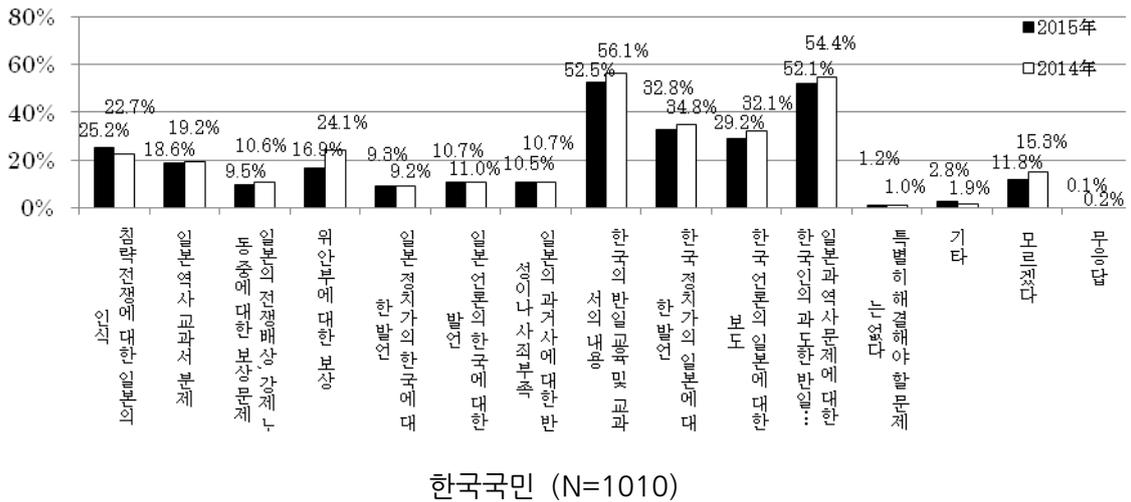
한편 역사문제 중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한국에서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를 꼽은 응답이 76.0%로 지난해 81.9%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았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식”을 꼽은 응답이 69.8%(지난해 71.6%), “침략전쟁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꼽은 응답이 60.9% (지난해 70.6%), “일본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부족”이 59.6% (지난해 58.7%)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반일교육과 교과서의 내용”을 꼽은 응답이 52.5%(지난해 56.1%)였고, “일본과의 역사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과도한 반일행동”이 52.1%(지난해 54.4%)로 뒤를 이었다.

※ 한국 조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선택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이었던 반면, 일본 조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보상”으로 선택지의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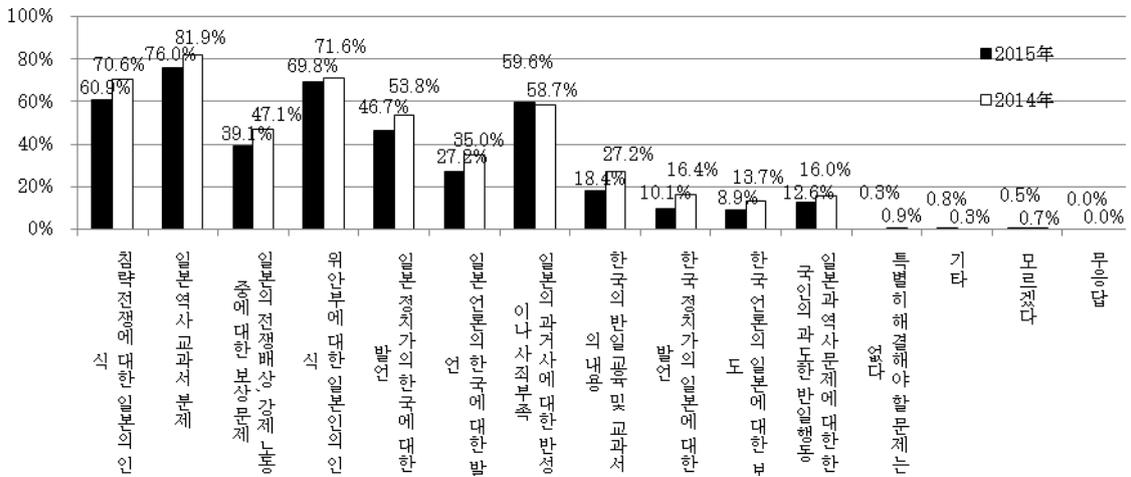
【그림 15 한일관계와 역사문제】



【그림 16 한일 역사문제에 관한 선결과제】  
일본국민 (N=1000)



한국국민 (N=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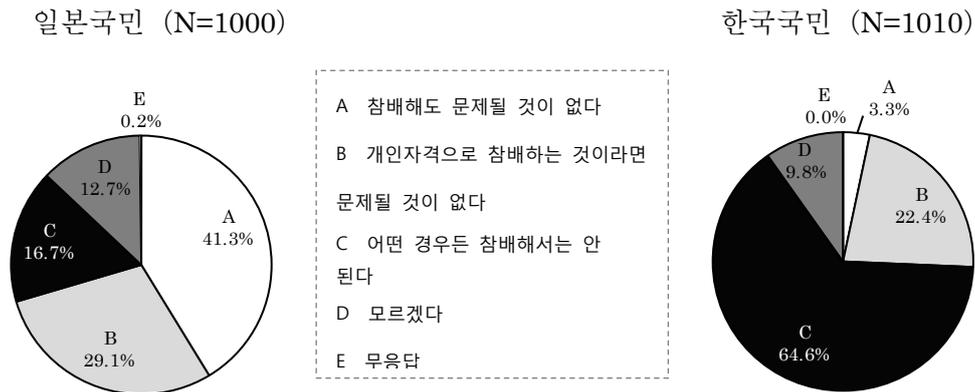
## 5 - 2.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문제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일본인의 70%가 용인하고 있지만, 한국인의 70% 가까이가 “공사 막론하고 참배해서는 안된다”며 반대하고있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한편, 한국인의 64.6%(지난해 66.5%)가 “공사를 막론하고 어떤 경우든 참배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한 반면, “참배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은 불과 3.3%(작년 3.1%)였다. “개인자격으로 참배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 22.4%(지난해 21.8%)를 합쳐도 야스쿠니 참배를 용인하는 여론은 30%에 못 미친다.

반면 일본에서는 “참배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용인하는 사람이 41.3%(지난해 43.0%)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개인자격으로 참배하는 것이라면 상관 없다”는 응답인 29.1%(지난해 24.9%)를 합하면 70.4%가 총리의 참배를 용인하고 있다.

【그림 17 일본수상의 신사참배 문제】



## 6. 한반도의 미래

### 6 - 1. 10년 후 한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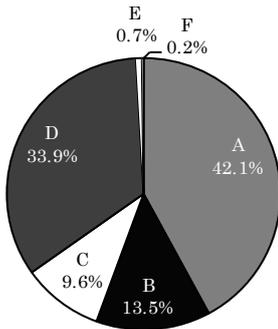
**10년 후 한반도의 모습에 대해 한일 양국에서 “현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급증하고있다**

10년 후 한반도의 모습에 대해 당사국인 한국에서 “현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35.0%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23.2%에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36.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던 “예상할 수 없다”는 응답은 26.3%로 떨어졌다. “남북 통일의 조짐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27.6% (지난해 26.4%)로 열 명 중 세 명 정도 존재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역시 “현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지난해 26.2%에서 42.1%로 대폭 증가하여 “예상할 수 없다”는 응답 33.9% (지난해 50.6%)를 훌쩍 뛰어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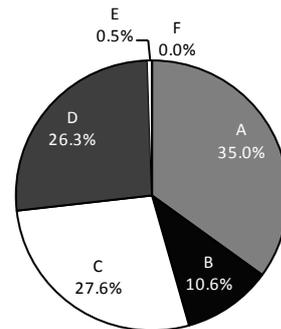
※ 일본의 지식인 조사에서는 “예상할 수 없다”는 응답이 33.4%(지난해 30.8%)로 가장 많았지만, “남북 통일의 조짐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 역시 27.8% (지난해 30.3%)로 열 명 중 세 명 꼴로 나타났다. 한국의 지식인 조사에서는 “남북 통일의 조짐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46.1% (지난해 50.9%)으로 가장 많았다.

【그림 18 10년 후 한반도 전망】

일본국민 (N=1000)



한국국민 (N=1010)



- A 현재상태로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 B 북한과의 대립이 심각해질 것이다
- C 남북통일의 조짐이 있을 것이다
- D 예상할 수 없다
- E 기타
- F 무응답

# 7. 한일 경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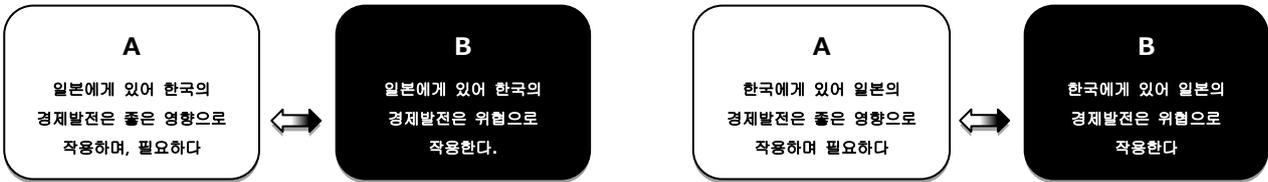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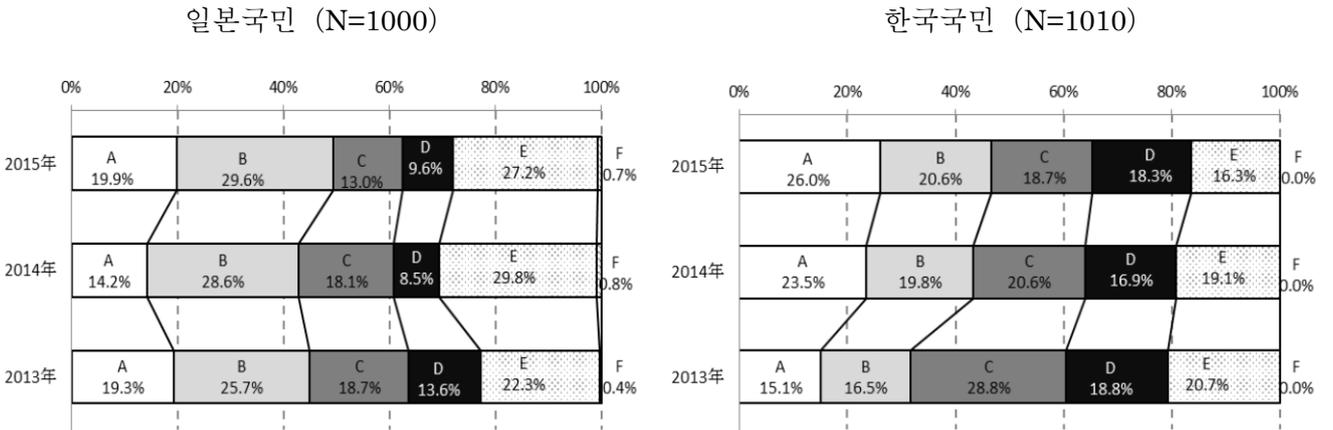
## 7 - 1. 한일 경제관계

**한일 경제 관계에 관해서는 양국 모두 상대국의 경제 발전이 자국에도 이익이라는 인식이 다수 .**

한일 경제관계에 대해 “일본의 경제 발전은 한국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필요하다”(“대체로 위협이다” 포함)는 견해가 한국에서 46.6%(지난해 43.3%)이며, “일본의 경제 발전은 한국에 위협이다”라는 입장에 대한 지지 37.0%(지난해 37.5%)을 웃돌았다.

일본의 경우도 “일본에게 한국의 경제 발전은 좋은 영향을 미치며, 필요하다”(“대체로 필요하다” 포함)는 입장을 가진 일본인은 49.5%(지난해 42.8%)로 절반에 달하여 한국의 경제 발전은 일본에 있어서도 이익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19 한일 경제관계】



A: A 쪽에 가깝다, B: 대체로 A 쪽에 가깝다, C: 대체로 B 쪽에 가깝다, D: B 에 가깝다, E: 잘 모르겠다, F: 무응답

## 8. 동아시아의 군사·안보

### 8 - 1. 군사적 위협과 한일 군사분쟁 가능성

**한국에서 “일본”을 군사적 위협으로 보는 입장이 60%에 육박했고, 한일 간의 군사 충돌 가능성 있다는 사람이 40%에 달하고 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군사적 위협으로 “북한”을 꼽은 응답이 83.4%(지난해 83.4%)로 가장 많았고, “일본”을 꼽은 응답은 58.1%로 지난해의 46.3%에서 크게 증가하여 “중국”을 꼽은 응답 36.8%(지난해 39.6%)를 크게 따돌리고 있다. 일본인이 가장 큰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북한”으로서 71.6%(지난해 72.5%)가 응답했고, 다음으로 “중국”을 꼽은 응답이 64.3%로 뒤를 이었지만, 지난해 71.4%에 비교해서는 감소했다.

또한 한일 간의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해 한국인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8.2%(지난해 47.9%)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수 년 이내에 일어날 것이다”는 응답 5.3%(지난해 6.7%)와 “먼 장래에 일어날 것이다”는 응답은 32.5%(지난해 34.1%)로 이 둘을 합치면 일본과의 군사 분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37.8%로 40%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 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5.7%(지난해 57.0%)로 이번 조사에서 60%를 넘어섰다. “수 년 이내에 일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0.7%(지난해 0.4%)와 “먼 장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8.6%(지난해 8.8%)로 둘을 합해도 군사 분쟁을 우려하는 일본인은 10%에도 못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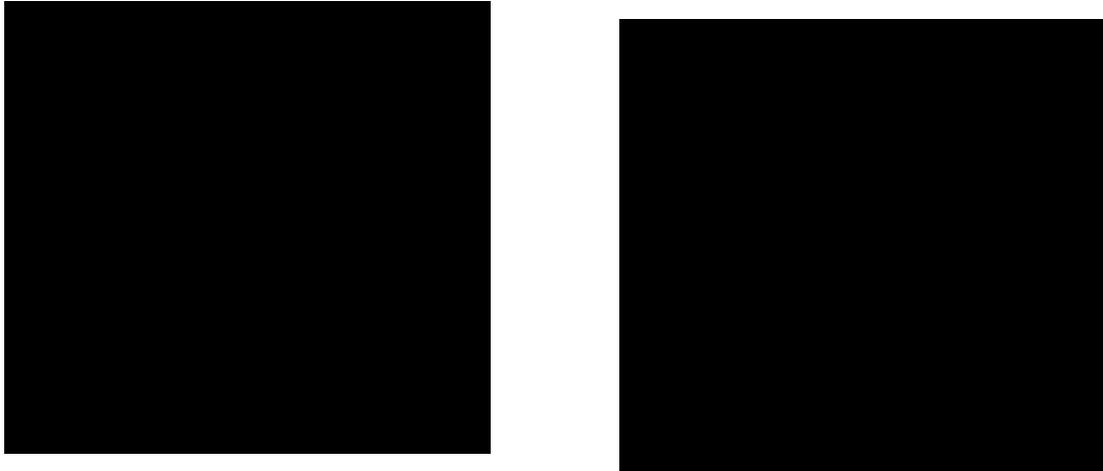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 한국에서는 “양국 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 33.4%로 가장 많았다.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25.0%,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다른 나라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17.9%로 존재한다. 일본인 중에서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38.8%이었고, “양국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21.5%로 뒤를 이었다.

※ 한국의 지식인 조사에서는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다른 나라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37.1%로 가장 많아 40%에 근접한 반면, 일본의 지식인 조사에서는 “영유권 판단을 당분간 보류하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31.2%로 가장 많았다.

【그림 20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국가와 지역】

일본국민 (N=1000)

한국국민 (N=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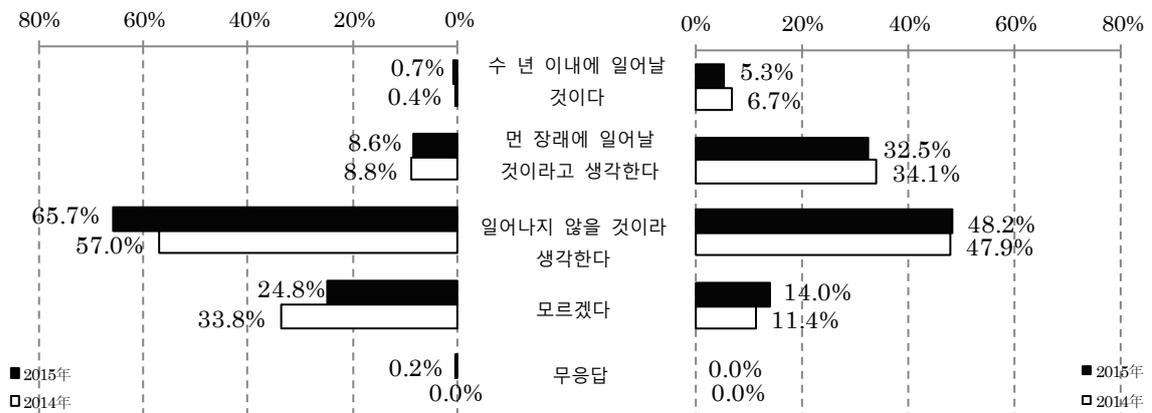


※日本側調査 측 조사에서는 "얼마든지 답변 선택 가능" 한국 측 조사에서는 "2 개의 답변 선택 가능 "

【그림 21 한일 간 군사분쟁 가능성】

일본국민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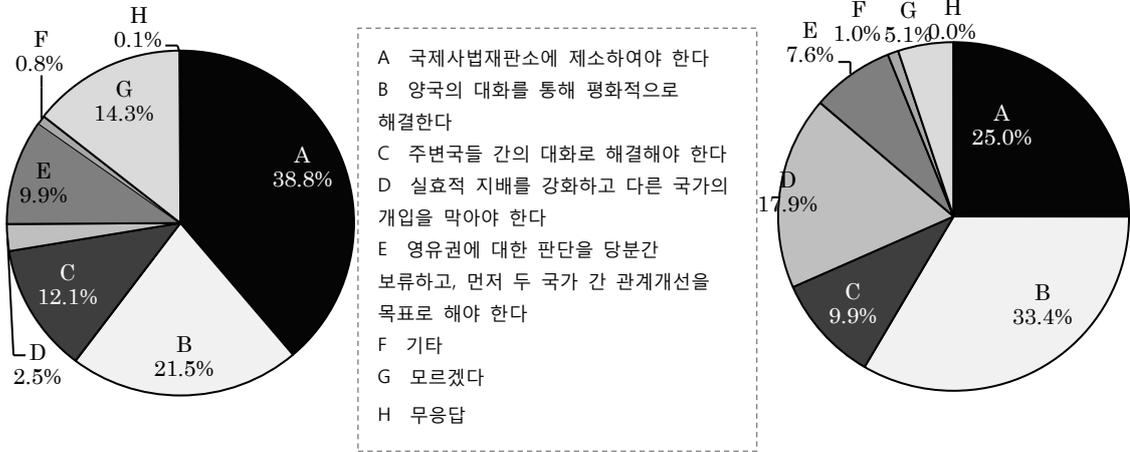
한국국민 (N=1010)



【그림 22 동아시아 영토 문제의 해결책】

일본국민 (N=612)

한국국민 (N=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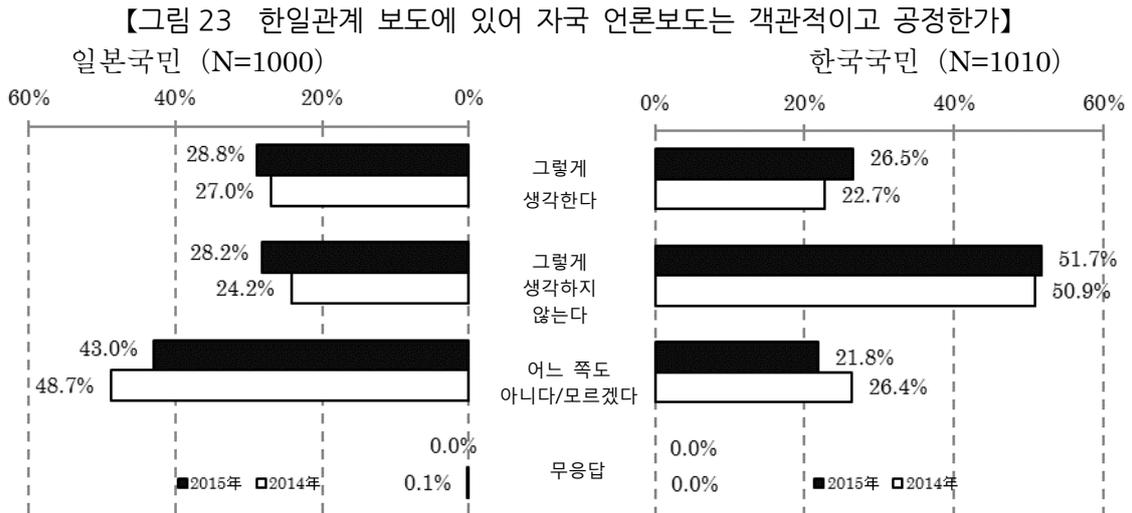


## 9. 양국의 미디어 보도 및 인터넷 여론의 평가

### 9 - 1. 자국 언론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평가

한국인의 절반이 자국 언론이 한일 관계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반면, 일본에서는 “둘 다 아니다/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국 언론이 한일 관계의 보도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1.7%(지난해 50.9%)로 지난 해에 이어 절반을 넘었고 “그렇다”는 응답은 26.5%(지난해 22.7%)로 20%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모르겠다”는 응답이 43.0%(지난해 48.7%)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는 응답은 28.8%(지난해 27.0%),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8.2%(지난해 24.2%)로 비슷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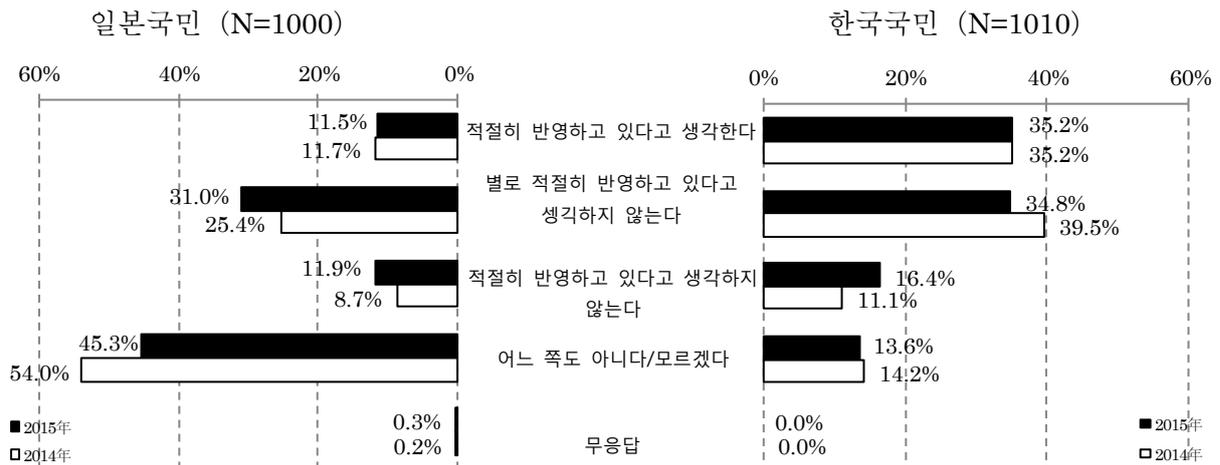
## 9 - 2. 인터넷에서의 상대국에 대한 여론이 민의를 적절히 반영하는가

**한국인의 절반, 일본인의 40%는 “인터넷에서의 상대국에 대한 여론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

인터넷상의 여론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국인은 “반영하지 않는다” (“별로 반영하지 않는다” 포함, 이하 동일)는 응답이 51.2%(지난해 50.6%)로 절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도 35.2%(지난해 35.2%)로 일정 수 이상 존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인은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지난해 34.1%에서 올해 42.9%로 증가한 반면,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모르겠다”는 응답은 45.3%(지난해 54.0%)로 줄어 들었다.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11.5%(지난해 11.7%)로 열 명 중 한 명에 그쳤다.

【그림 24 인터넷 여론의 민의 반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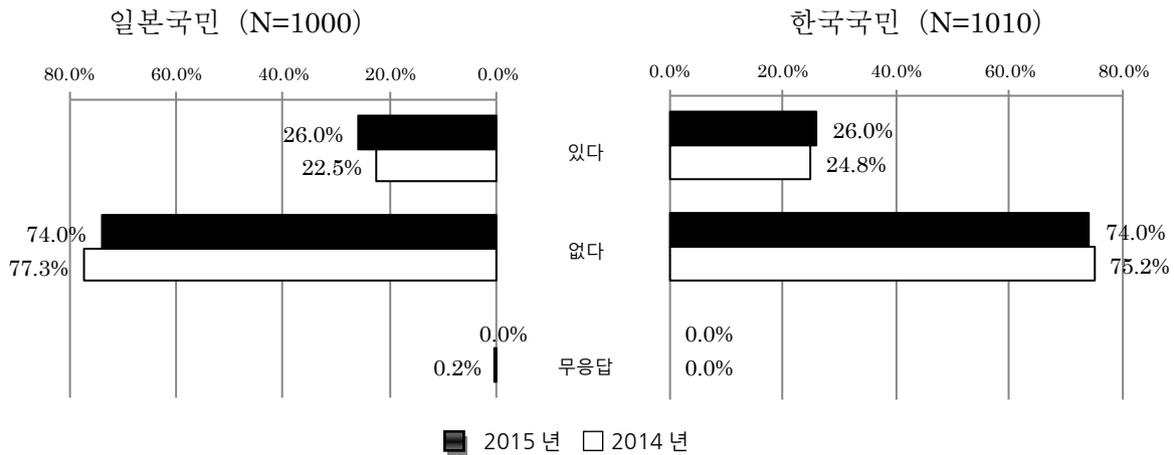
# 10. 양국민의 상호 이해의 배경

## 10 - 1. 양 국민의 직접교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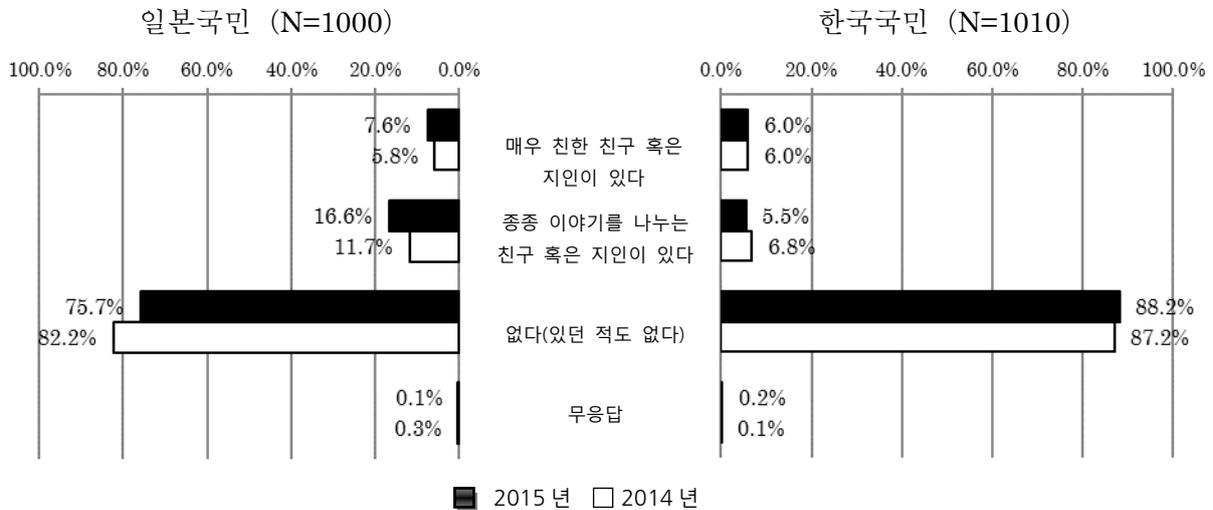
**양국 국민 모두 상대국을 방문한 경험은 20% 수준. 한국인의 80%, 일본인의 70%이상은 상대국가에 친지, 지인 없다.**

한국인 중 일본 방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6.0%(지난해 24.8%), 일본인 중 한국 방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역시 26.0%(지난해 22.5%)에 그쳤다. 한국인의 88.2%(지난해 87.2%), 일본인의 75.7% (지난해 82.2%)가 “상대국 국민에 아는 사람은 없다(있었던 적도 없다)”고 답해 양 국민 사이에 상대 국가와의 직접적인 교류의 정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25 상대국 방문 경험 여부】



【그림26 상대국의 지인, 친지 유무】



## 10 - 2. 상대국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과 정보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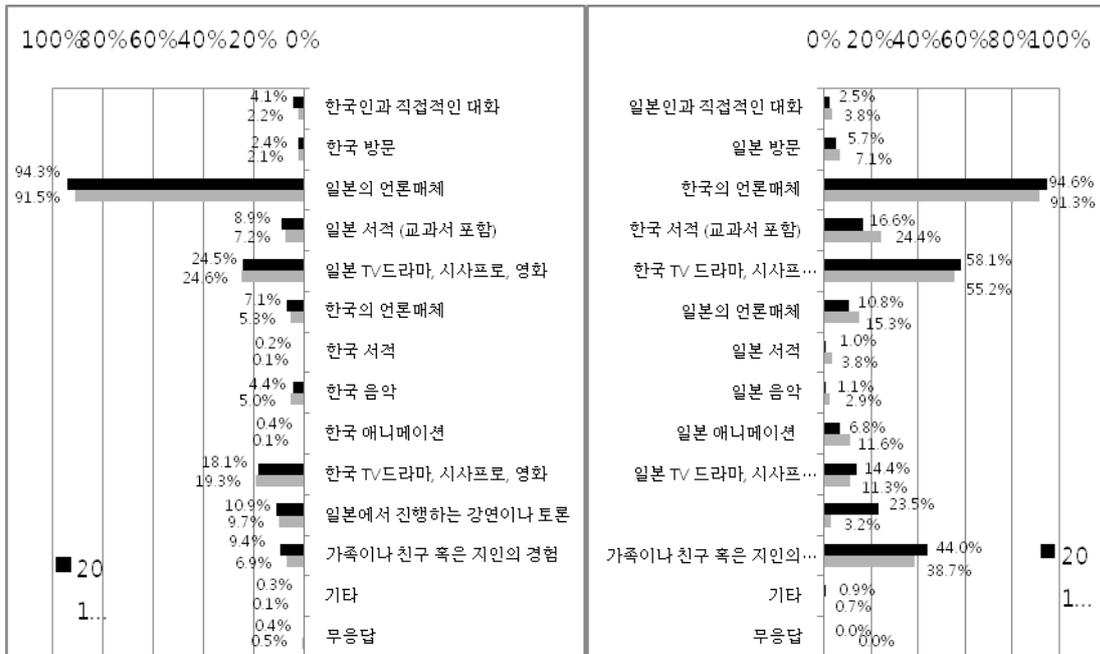
상대국에 대한 정보는 양 국민 모두 90% 이상이 “자국의 뉴스 미디어”에서 얻고 있으며, 특히 “TV”에 의존하고 있다.

양 국민 모두 상대국에 대한 정보 출처는 90%이상(한국은 94.6%, 일본은 94.3%)이 “자국의 뉴스 미디어”라고 응답했고, 특히 “TV”에 의존하고 있다. 상대국에 대한 정보 출처로 “한국 TV 드라마 등”을 꼽은 응답이 한국에서는 58.1%로 열 명 중 여섯 명에 가까웠고, 일본에서도 “한국 TV 드라마 등”을 꼽은 응답이 18.1%로 20%에 근접했다. 한국에서는 그 외 “가족, 지인 등의 경험”을 선택한 사람이 44%, “한국에서 진행되는 강연이나 토론”이 지난해 3.2%에서 23.5%로 2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그림 27 상대국과 한일관계에 대한 정보취득 경로】

일본국민 (N=1000)

한국국민 (N=1010)



■ 2015년 □ 2014년

## 11. 올림픽·패럴림픽과 한일관계

### 11 - 1. 올림픽·패럴림픽과 한일관계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의 양 올림픽·패럴림픽 대회가 한일 관계의 진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일본인 중에서는 41.6%로 다수였지만, 한국에서는 반대로 41.9%가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2018 평창군에서 일본은 2020년 도쿄에서 각각 올림픽·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이 펼쳐진다. 올해 조사에서는 이러한 스포츠 이벤트에 관련한 설문을 포함했다. 먼저 두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한일양국의 우호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 지 물었을 때, 한국인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포함, 이하 동일)는 응답이 41.9%로 “그렇다”(“약간 그렇다” 포함, 이하 동일)는 응답 33.8%를 웃돌아 두 올림픽·패럴림픽 대회가 한일 관계 진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반면, 일본인은 “그렇다”는 답변이 41.6%, “그렇지 않다”는 34.8%를 넘어서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여론이 다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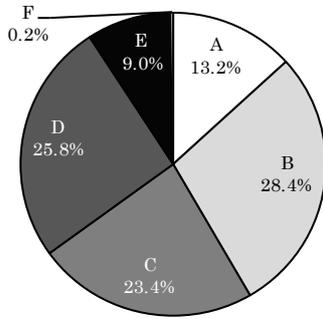
다음으로, 두 패럴림픽 대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고령자 등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를 물었다. 한국인의 53.4%, 일본인의 57.4%가 “그렇다”고 답해 양국 모두 과반이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두 장애인 올림픽을 위해 한일 양국이 어떠한 대화, 교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지 물어본 결과, 한국인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관한 대화와 교류”를 꼽은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협력”이 33.7%로 뒤를 이었다. 일본인에서도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관한 대화와 교류”를 꼽은 응답(53.0%)과 “장애인 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협력”(50.3%)을 꼽은 응답들이 절반을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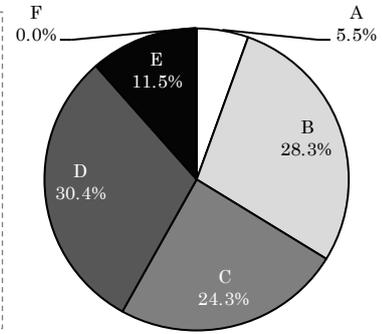
【그림 28 올림픽·패럴림픽이 한일협력을 강화할까】

일본국민 (N=1000)

한국국민 (N=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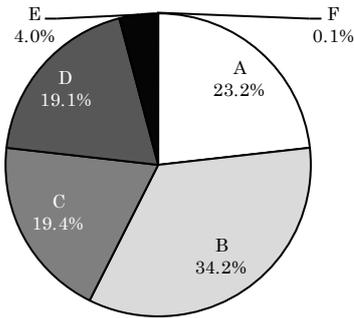
- A 그렇게 생각한다
- B 약간 그렇게 생각한다
- C 어느 쪽도 아니다
- D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E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F 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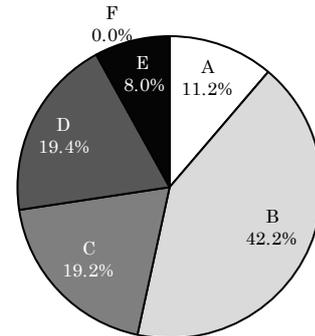
【그림 29 장애인 인식제고에 기여 가능성】

일본국민 (N=1000)

한국국민 (N=1010)



- A 그렇게 생각한다
- B 약간 그렇게 생각한다
- C 어느 쪽도 아니다
- D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E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F 무응답



【그림 30 패럴림픽 위한 한일협력방안】

